

“광주·전남, 리쇼어링 대비 4차산업 생태계 조성”

생산성 향상·고급일자리·고용창출로 지방재정 증대 한은 광주·전남연구팀... 인력 양성·거버넌스 구축도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에 대비하기 위해 광주·전남도 4차 산업혁명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 강수연 조사역과 문제철 과장은 22일 배포한 연구자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생산혁신으로 생산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자국 생산이 유리한 상황으로 전환돼 리쇼어링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로 복귀하거나 복귀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중소기업 88개이

며, 이 중 광주·전남으로 복귀한 기업은 자동차부품 생산기업 1개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남에서는 삼성전자와 동부대우전자, 기아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체들이 여전히 해외에 생산설비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탁기(2011년 중국)와 청소기(2014년 베트남), 냉장고(2015년 베트남) 생산 라인을, 동부대우전자는 소형 세탁기와 냉장고 라인(2014년 중국)을 해외로 이전했다. 기아자동차도 2016년 소형차 공장을 멕시코에 새로 조성했다. 연구팀은 리쇼어링이 고용창출 효과 면에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생산성과 임금

? 리쇼어링(Reshoring) 값싼 인건비 등을 이유로 중국이나 인도 등 해외에 생산설비를 이전한 기업이 자국의 규제 완화와 가격 경쟁력 상승 등에 따라 본국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말한다.

수익 발생에 따른 지방재정 증대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광주·전남지역이 기업의 리쇼어링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가전, 에너지 등 지역 전략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스마트팩토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리쇼어링 기업들의 인력 수요에 대비한 4차 산업혁명 전문성과 적응력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전공대(설립 예정) 등 지역 내

대학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설립추진 중) 등의 산·학 연계프로그램,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혁신 기술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리쇼어링 관련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리쇼어링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기존 투자유치 조직을 확대해 관련 제도와 입지, 금융 등 제반 지원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자동차와 에너지 등 지역의 강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에 나가있는 국내 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독자적인 기술발전이 용이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과 보급 체계를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영암 F1 서킷 사용료 오른다

다른 경주장보다 낮아 내년 10% 인상 추진

영암 F1자동차경주장 사용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장 운영 인건비와 유지비 상승 때문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영암 경주장은 흑한·흑서기, 시설 보수 기간을 빼고 사용 가능한 293일 가운데 278일을 가동했다. 이 기간 서킷 임대 26억원(83.6%), 부대시설 사용료 2억6300만원(8.4%), 기타 2억5100만원(8%) 등 31억1400만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이월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37억7000만원, 지출은 32억5000만원이다. 활용 유형별로는 차량·부품 테스트 122일, 동호회 등 스포츠 주행 101일, 모터스포츠 대회 42일, 기업 행사 8일,

국가 또는 전남도 주관 행사 5일 등 순으로 많았다. 영암 경주장은 국내 42개 스포츠 대회 중 25개를 유치했으며, 총 방문객은 18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1000명 줄었다. 전남도는 운영 의존도가 가장 큰 서킷 임대료를 10%가량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주장 운영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상승하는 추세이고 다른 경주장보다 m당 사용료도 낮은 수준이라고 전남도는 이유를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2012년 서킷 사용료 책정 이후 물가상승률은 14.3%에 달하지만, 사용료는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며 “올해 사용료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농촌 정주·생활환경 개선

전남도, 1470억 투입

전남 농촌지역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470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일반농산어촌개발 12개 분야 총 369건의 사업에 14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35억원보다 235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사업별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3개 분야 55개 지구 723억원, 마을 만들기 6개 분야 109개 지구에 361억원, 지역 역량 강화 및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3개 분야 205개 지구에 386억원 등이다. 사업은 크게 농촌 중심지 활성화, 마을 만들기, 지역역량 강화,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등으로 나뉘 추진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필리핀 마운화산 폭발... 경보 수위 격상
보 수위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340km 떨어진 알바이주 레가스피 시에서 바라본 마운 화산 폭발 모습. 필리핀 재난 당국은 마운화산에 대한 경 /연합뉴스

전남도, 18~34세 청년에 구직활동비 지원한다

강성희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전남 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강성희 의원(목포1·국민의당)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돕고자 ‘전남 청년 구직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남에 사는 만18~34세 구직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청년 실업률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내용, 청년 구직지원 시스템 등에 대한 계획과 규칙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일자리 감소, 노동강도 강화 등 어려움이 부딪힌 청년들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강 의원은 “전남은 전국 청년 실업률의 2배를 넘는 지역”이라며 “지난해 전남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60%가 일자리 문제 등으로 전남을 떠날 계획을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해 청년 인구 유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전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윤장현 시장 “광주, 전기차 관련 대기업 투자 여건 갖췄다”

“車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인프라·광주형 일자리 구축”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대기업 유치에 자신감을 내보이며, 향후 정부와 대기업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시장은 22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기자동차 관련 인프라,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노사관계 등 광주가 전기자동차 관련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의 상당부분을 갖췄다”고 밝혔다. 구

체적으로 “7~8부 능선을 넘었다”는 것이 윤 시장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조와의 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노사합의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한다면 전기자동차 관련 국내의 대기업이 우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전기차(EV)100인



포럼’에 산업자원부, 현대자동차 관계자가 참가한 것에 의미를 두기도 했다. 그는 “현대차는 그동안 수소연료 전기차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최근에는 세계적인 흐름에 있어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광주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유력한

대기업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윤 시장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광주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 대통합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다면 어느 도시보다 좋은 조건이 갖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업계의 임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연 4000만원대로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골자로 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이동진 무안군의회의장, 군수 출마 선언

이동진(사진) 무안군의회의장이 6·13지방선거 무안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장은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안군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 무안국제공항 경유,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등이 확정됐을에도 군수 부재로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명실공히 전남 행정의 1번지 무안군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투명행정·소통화합하는 행복무안 건설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늘리기 ▲특성화 교육 중점 지원 ▲농업경쟁력 강화 ▲안전무안 조성 등을 약속했다. 한편, 무안군은 김철주 군수의 구속으로 권한대행체제로 업무가 진행 중이며, 무주공산이 된 군수에 입지자 7~8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무안=임동현기자 jdh@kwangju.co.kr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기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6-사이클론콜렉터

더스트크리너의 새로운 창, 새로운 발명
사이클론을 한 몸에 품다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 주 공 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062-953-2995
익 산 공 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례동) Tel.063-835-4771